동아시아문화연구 제56집 | 247~272쪽 | 2014.2

『香臺紀覽』 기록에 투영된 일제시대 臺灣의 모습

陳慶智*

<차 례>

1. 서론
2. 대만 관광 경위와 미쓰이(三井)회사
3. 기록에서 투영된 대만 모습의 일면
4. 결론

[국문초록]

대만은 한국과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두 나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과 같이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대만은 조선에서 벌어진 동학운동(東學運動) 때문에 청일전쟁의 패전 대가로 1895년에 일본에 할양되었다. 한국 또한 15년 후 1910년에 일본의 군사적 압박에 못 이겨 한일합병조약을 맺어 대만과 같이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장기적 식민통치로 인해 대만에는 간접적으로 대만과 중국 사이에 민족적·정치적·사상적 괴리현상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에는 남북분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역사에 얽힌 두 나라는 한류열풍을 계기로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하고 있다. 양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대만의 6번째 대만은 한국의 7번째 무역 상대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발한 교류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한국 양국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치, 경제, 문화, 언어 등의 분야에서 비교적 많은 비교연구가 이뤄져 그간의 연구 공백을 어느 정도 채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일제시대에 있었던 대만과 한국 양국 교류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연구

*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성과가 없다. 이 중에서도 특히 민간 교류에 관한 연구는 유난히 드물다. 양국의 교류는 날로 빈번하고 긴밀해지는 이 시점에 연구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향대기람(香臺紀覽)』이란 책은 공성학(孔聖學)을 비롯한 일제시대 조선의 개성상인들이 대만, 홍콩을 유람하면서 기록한 시문이다. 9일간의 대만 관광은 가장 북쪽인 기륭(基隆)부터 가장 남쪽인 아란비(鵝鑾鼻)까지 대만 서부지방의 유명한 관광명소와 당시의 현대시설을 유람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기 형식의 기록문은 관광 일정의 날짜, 시간, 교통수단, 숙박시설, 견문 등을 대부분 망라하여 자세히 기록한 덕분에 그 당시의 실제 상황을 상상하고 복원할 수 있게 한다. 흥에 겨워 지은 시문 또한 마음 속에 감춰 놓았던 감회를 여실히 반영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공식적이 아닌 민간적인 입장,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 시각으로 바라본 일제시대 대만에서의 양국 교류 현장을 연구할 때 가장 소중하고 적합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를 중심으로 조선의 상인들이 대만을 관광하면서 남긴 『향대기람』을 통해 그 당시 대만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양상을 복원하고 기록에 깔려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에 1장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과 한계를 밝혔다. 2장에서는 조선 사람이 대만에 가진 인식을 소개하고 공성학 일행의 대만 방문 동기를 찾아냈다. 그리고 공성학이 소속된 개성상인 집단과 미쓰이(三井)회사의 정체를 밝힌 후 둘 사이의 밀착한 관계를 해명했다. 3장에서 대만의 실태를 재현하기 위해 동화적 의미를 가진 관광지와 이국적인 경치를 통해 표면적인 모습을 구성한 후 다시 그 속에서 내포된 의미를 발굴했다. 동시에 조선과 대만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적·문화적 연계를 찾아내 지금까지 대만과 한국의 민간교류 사이의 공백을 채우려고 노력했다. 4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남은 과제를 제출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

[주제어] 공성학(孔聖學), 향대기람(香臺紀覽), 일제시기, 미쓰이회사(三井會社), 마조신앙(媽祖信仰), 정성공(鄭成功)

1. 서론

대만은 한국과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두 나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과 같이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대만은 조선에서 일어난 동학운동(東學運動)으로 인해 벌어진 청일전쟁의 패전 대가로 1895년 일본에 할양되었다. 한국 또한 1910년 일본의 군사적 압박에 못 이겨 한일합병조약을 맺음으로써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장기적 식민통치로 인해 대만에는 간접적으로 대만과 중국 사이에 민족적·정치적·사상적 괴리현상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에는 남북분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역사에 얽힌 두 나라는 한류열풍을 계기로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하고 있다. 양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대만의 6번째,[1] 대만은 한국의 7번째[2] 무역 상대

국이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 통계수치를 보면 대만에 입국한 외국 관광객 중에서 한국은 6위,[3] 한국에 입국한 외국 관광객 중에서 대만은 4위[4]를 차지하면서 서로 상위권에 들었다. 이러한 통계수치만 보아도 양국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발한 교류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한국 양국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치, 경제, 문화, 언어 등의 분야에서 많은 비교 연구가 이뤄져 그간의 연구 공백을 채우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일제시대의 양국 교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연구 성과가 없다. 이 중에서도 특히 민간 교류에 관한 연구는 유난히 드물다. 양국의 교류가 날로 빈번하고 긴밀해지는 이 시점에 연구의 폭을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향대기람(香臺紀覽)』이란 책이 대중들에게 소개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5] 이 책은 공성학(孔聖學)을 비롯한 일제시대 조선의 개성상인들이 대만, 홍콩을 유람하면서 기록한 시문이다. 9일간의 대만 관광은 가장 북쪽인 기륭(基隆)부터 가장 남쪽인 아란비(鵝鑾鼻)까지 대만 서부지방의 유명한 관광명소와 당시의 현대시설을 유람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기 형식의 기록문은 관광 일정의 날짜, 시간, 교통수단, 숙박시설, 견문 등을 대부분 망라하여 자세히 기록한 덕분에 그 당시의 실제 상황을 상상하고 복원할 수 있게 한다. 그때 지은 시문 또한 마음 속에 감춰 놓았던 감회를 여실히 반영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공식적이지 않은 민간적인 입장,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 시각으로 바라본 일제시대 대만에서의

---

1)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수출입 무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1~2013.8 동안 대만과 한국 양국 간의 무역 총액은 미불 18,746,477,991불에 달하여 대만과 무역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중국, 일본, 미국, 홍콩, 싱가포르를 이어 6위를 차지했다(http://cus93.trade.gov.tw/FSCI/).

2)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2013.1~2013.10 동안 대만과의 무역 총액은 미불 13,096,459,000불에 달하여 중국,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을 이어 7위를 차지했다. (http://stat.kita.net/)

3) 대만 교통부 관광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한국 관광객 총수는 58,205명에 달하여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마카오 포함)을 이어 전체 외국 관광객 중에서 6위를 차지했다. (http://admin.taiwan.net.tw/statistics/year.aspx?no=134)

4)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대만 관광객 총수는 548,232명에 달하여 전체 외국 관광객 중에서 중국, 일본, 미국을 이어 4위를 차지했다(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data/statis/profit.kto).

5) 2012년 3월 29일 한국고전번역원 전문위원인 노관범은 1928년 개성상인의 대만 여행이란 주제로 처음 『향대기람』을 소개하고 일부 원문을 번역했다.

양국 교류 현장을 연구할 때 가장 소중하고 적합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를 중심으로 조선의 상인들이 대만을 관광하면서 남긴 시문을 통해 그 당시 대만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양상을 복원하고 기록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책 한 권으로 대만의 실제 모습을 서술하고 해설하는 것은 실로 역부족이다. 또한 친일적인 인물에 의해 작성된 시문의 신빙성과 편향된 시각이 어느 정도인지도 의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한계를 인정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2. 대만 관광 경위와 미쓰이(三井)회사

대만을 관람한 공성학 일행은 개성의 중요한 상인 집단이다. 이 상인 집단은 어떤 계기로 먼 바닷길을 넘어 대만을 관광하게 되었을까? 또한 여정의 기록 속에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나타난 미쓰이회사, 그리고 관련된 인사들이 이 여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이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대만에 대한 인식과 관광 동기

(1) 조선인의 대만 인식

정보 수집이 용이치 못했던 일제시대에 조선 사람들이 외국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은 신문이었다. 그러면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의 민중들은 신문을 통해 대만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1920년대에 들어선 후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발행된 매일신보(1910~1945)의 독주시대가 막을 내리고 동아일보(1920~1940), 조선일보(1920~1940) 등 민간 신문이 등장한다. 이에 따라 대만에 대한 기사도 정치, 경제와 같이 식민통치의 성과만을 피력할 수 있는 주제에서 벗어나 국제, 교육, 문화 등 그 분류가 확장되어 기사가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사 게재수도 급격히 늘었다.[6] 손준식이 일찍이

6) 鄭惠瓊, 植民地 時期 朝鮮 社會의 外地 認識:臺灣과 南洋群島 新聞記事 論調 分析,『한일민족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대만에 대한 조선의 인식을 조사한 적이 있다.[7] 그는 대만에 대한 인식을 바나나의 나라, 허생의 이상국, 경쟁과 협력의 대상, 그리고 동병상련의 처지 등 네 종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만을 토지가 비옥하고 자원이 풍부한 섬으로 그려졌으며 그 땅에서 생산된 바나나, 당밀(糖蜜), 감저(甘藷) 등 농산물의 신기함과 중요함을 주로 거론했다. 정치적으로는 대만과 한국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으며 민족적·민주적 권력과 주장을 신장시키지 못하는 동병상련의 처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일제시대 조선 사람들은 위와 같은 기사를 통해 온전하지 못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대만을 바나나와 같은 열대 농산물이나 대량 생산하는 아직까지 미개한 번족(蕃族)이 살고 있는 일본의 식민지로 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들은 표면적인 묘사에 불과하다. 장기간 대만에 머무르면서 대만 현지 사람이나 문화를 직접 접촉하고 교감하지 않은 채 기사만으로 진정한 대만의 모습을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2) 대만을 관광하게 된 동기

『항대기람』 권1의 첫머리에 공성학 일행이 당시 홍콩 여행의 동기를 명백히 밝혔다.[8] 삼업조합(蔘業組合)을 설립한 후 홍삼의 판로가 중국에서 날로 확장되었는데 특히 상해와 홍콩이 그 중심지였다. 공성학 일행은 일찍이 1923년에 상해의 판로를 이미 시찰한 적이 있고 홍콩 시장을 운영한 것도 이미 여러 해가 되었다. 따라서 1928년 봄에 조합장 손봉상(孫鳳祥), 부조합장 공성학, 동생 공성구(孔聖求), 그리고 삼업 기술자인 이토기쿠지로(伊藤菊治郎)도 수행원으로 같이 떠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의 제목이 『항대기람』으로 홍콩과 대

문제연구』(한일민족문제학회, 2012), 58면 : "기사 게재수(1938년 4월 이전)에서 매일신보가 232건인데 비해 동아일보는 925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국제', '교육' 등 매일신보에서는 찾을 수 없는 대분류 주제도 찾을 수 있다."

7) 손준식, ≪동아일보≫(1920~1940) 기사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臺灣 인식」, 『中國學報』 Vol. 61(한국중국학회, 2010), 331~338면.

8) 『香臺紀覽』 卷一, 「日記」. "自蔘業組合設立以來, 紅蔘販路日復擴張於支那一帶, 而上海與香港尤其樞要地也. 往在癸亥, 上海之販路先已視察, 而經營香港又有年矣. 今春始決其議, 組合長孫鳳祥, 副組合長孔聖學兩氏同伴登程, 而蔘業技手伊藤菊治郎以隨員從之, 余亦得偕焉. 寛昭和三年四月三十日(戊辰三月十一日)也."

만의 유람 기록이라는 뜻인데, 대만을 방문하려는 의도와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추측으로는 애당초 대만을 방문지로 선정할 생각이 없었으나 1928년 봄에 모의했을 때 임시로 추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왜 홍콩을 방문하기 전에 대만 일정을 따로 추가했는가? 한 해 전의 대만 기사에서 대략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927년 동아일보의 대만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경제에 대한 기사가 다른 해보다 유난히 많다. 쇼와(昭和)시기(1926~1989) 일본에서 금융권 신용관계가 붕괴함으로써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당시의 鈴木(스즈키)상점도 금융공황(金融恐慌)을 이기지 못해 파산선고를 했다. 그 금융공황의 여파로 스즈키상점과 대차 관계가 깊은 대만은행(臺灣銀行)도 영향을 받아 경영위기에 부딪혔다. 일련의 연쇄효과로 인해 대만처럼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는 조선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 사태의 귀추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국제무역 시장의 홍삼판로를 개발하기 위해 급히 서두르고 있던 공성학 일행이 이 소식을 그냥 간과했을 리가 없다. 이와 더불어 대만과 조선 간의 무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1927년에 정기적인 증기선 항로도 생기게 되었다.[9] 직행으로 가져오는 물품의 운송 시간과 비용 절감 등의 장점도 공성학 일행이 대만을 방문하고 관광을 하게 된 이유라고 추측된다.

그렇다면 이번의 대만 방문은 처음부터 시찰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관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 책의 서문에 손봉상은 자신이 1923년에 황푸강(黃浦江) 이북의 명승지들은 모두 가 봤지만 황푸강 이남의 여러 지역을 아직 유람하지 못해서 정말로 유감스럽다고 밝힌 적이 있다.[10] 사실 『중유일기(中遊日記)』에 기록한 1923년의 출국 역시 홍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으로 간 것이

9) 『동아일보』의 1927년 8월 3일 기사 「朝鮮臺灣間 定期汽船航路, 八月부터 實行」과 1928년 5월 19일에 보도된 「朝鮮臺灣郵船航路 六月以後 增加」 이 두 기사를 보면 대만과 한국 사이에 직항 노선이 생긴 것은 확실해 보이나, 공석학 일행의 여행 경로가 일본을 경유한 것으로 미뤄 볼 때, 이 항로는 화물선 정기 노선일 가능성이 크다.

10) 『香臺紀覽』, 「序」. "往歲甲子出遊中華, 海而抵黃浦, 歷秦淮, 浮楊子, 入漢口. 陸而登泰山, 拜曲阜, 透迤北京以還. 傳記所載高山大川, 前人所過名區勝地, 以至雄府大都, 槩一括矣, 而恨未及周覽黃浦以南諸州為快矣. 越四年戊辰, 又有方便, 海而入臺灣, 至香港."

었다. 그러나 시찰 결과보다 관광을 제대로 다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더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심지어 『중유일기』에는 미쓰이회사의 후한 대접과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일행이 홍삼 판로를 위한 시찰단이 아닌 관광단이라고 자칭하기도 했다.[11] 요컨대 대만을 방문하려는 원래 목적은 시찰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 배정된 일정을 보면 상당 부분이 관광 일정이었다. 이는 해외여행이 그다지 용이치 못했던 일제시대에 시찰과 관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한 방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12]

2) 개성상인 단체와 미쓰이회사

『항대기람』의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공성학을 비롯한 개성상인 단체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단체가 어떻게 일제시대 조선에서 설립되었고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내용에 투영된 생각이나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집단의 핵심집단 가까이서 교제했던 미쓰이회사는 대만과 조선의 교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이 장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1) 개성상인 단체의 결성

고려시대가 끝나고 조선시대로 들어왔어도 조선 권력자들은 그때까지도 이전 수도였던 개성에서 태어난 문인들을 계속 경계하고 배척했다. 조선시대 내내 정치적인 소외를 당했던 개성 출신들은 19, 20세기에 접어들어서야 신분제도의 약화로 숨을 돌릴 기회가 생겼다. 그들은 경제적인 부를 누적해서 자신들의 활동 영역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손꼽을 수 있는 자가 바로 공성학(1879~1957)이다. 그는 삼포를 경영함으로써 개성상인 집단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시문 창작을 좋아해서 개성 문인을 모아 시사(詩社)도 설립하

---

11) 『中遊日記』, 4월 4일. "余顧謂天野曰 : '自漢城發時, 意謂有紅蔘販路視察目的矣. 自門司至此, 只受三井支店之迎送宴會, 今余之行便是三井主催觀光團也.'"

12) 박석용, 일제시대 한국인 일본여행에 비친 일본-시찰단의 근대 공간성과 타자성 인식-」, 『대구사학』(대구사학회, 2010), 35면 : "한국인이 외국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호적과 성명, 원적, 연령, 신분, 직업, 여행할 곳, 여행 목적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소재지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다."

고 일련의 간행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13] 이러한 문화 사업 운영이 가능한 중요한 원인은 공성학이 삼포를 경영하고 삼포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개성상인 집단의 결성은 공성학에게 경제적 기반을 안정시켜 주고 더 나아가 문인 간의 영향력도 증진시켜 주는 상부상조의 효과가 있었다.[14] 따라서 공성학이 소속된 집단은 단순한 상인 집단이 아닌 개성에서 유학을 수호하는 유상(儒商)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미쓰이회사와의 연관성

『향대기람』에는 미쓰이회사가 우리 홍삼을 독점하여 판매하는데 판로가 불황에 빠졌을 때마다 고려인삼의 가격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실로 미쓰이회사 덕분이라고 쓰여 있었다.[15] 이는 홍삼조합에서 생산된 홍삼을 해외로 판매할 때 미쓰이회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해외 방문 일정의 안배뿐만 아니라 공성학 일행이 외국을 방문할 때마다 미쓰이회사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와 후한 대접을 받은 것을 보면 양자 간에 두터운 정의가 존재한 것이 분명하다.[16]

그러면 일제시대의 미쓰이회사는 어떤 회사였는가? 미쓰이회사는 일본의 개방이 본격화되었을 때 무역, 은행, 광업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 진출하여 그 세력을 넓힌 회사이다. 1919년 삼일독립운동 직후 일본 정부는 식민지와의 차별을 감소하기 위해 내지와 같은 법령과 정책을 채용하는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를 시행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 정부는 미쓰이회사를 대만과 조선 시장으로 진출시켜 대만의 잎차, 장뇌 그리고 조선의 홍삼, 광산 등 가치가 높은 경제작물

---

13) 공성학, 為孔春圃先生六十一歲壽徵言啟」, 『春圃壽言彙錄』(漢城圖書, 1940). "…性好作詩, 出入坐臥, 未嘗絕吟(…성품이 시 짓는 것을 좋아하여 일상생활에서 시를 짓지 않는 적이 없었다)."

14) 이은주, 「일제강점기 개성상인 孔聖學의 간행사업 연구」, 『語文學』 Vol.118(한국어문학회, 2012), 183면 : "1940년에 孔聖學 아들인 孔鎭亘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축하하는 시문을 받아 『春圃壽言彙錄』을 출간한 일이다. 참여한 인원은 대략 700여 명 정도로 상당히 많은 편이라 지역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는데, 전국 팔도가 모두 망라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가한 대규모의 작업이었다. 이 책은 보내준 사람들의 광범위한 지역 분포도와 양적 규모면에서 압도적이어서 이 당시 공성학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15) 『香臺紀覽』 卷一, 「日記」. "盖三井會社權我紅蔘販賣權, 而當其販路不況之時, 能維持高麗蔘聲價, 竟收利潤於今日者, 誠三井之力也."

16) 『香臺紀覽』 卷一, 「日記」. "曾年上海之行, 天野氏為案內, 而今又同伴者亦三井之厚意也."

이나 산업을 독점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러한 경제적 농단이 가져온 폭리로 인해 미쓰이회사에 대한 불만이 커져갔다는 기사도 있었다.17)

3. 기록에서 투영된 대만 모습의 일면

공성학 일행의 대만 방문은 옛날 중국으로의 연행사나 일본으로의 통신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 전대의 사람들이 사행길을 따라갔을 때의 이동 노선과 대면 상대에는 많은 제한이 있었다. 그런데 『향대기람』의 내용을 보면 미쓰이회사 관계자와의 사전 토론18)이나 일정 안배의 유연한 조정에서 보듯이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를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공성학 일행의 대만 방문이 완전히 그들 의지대로 계획된 것도 아니었다. 1927년에 대만일일신보(臺灣日日新報)는 대만과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엽서를 이용한 대만팔경(臺灣八景) 투표 활동을 크게 시행했다.19) 대만 일정과 투표 결과를 대조해 보면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행들이 참여했던 관광 코스는 다름이 아닌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관광 노선이었다.

미쓰이회사가 일정을 주도한 만큼 공성학 일행들도 현지 직원들의 후한 대접과 세심한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대만을 제대로 관광하는 것은 실로 불가능하다. 일정이 빠듯한 탓에 심야 기차를 타고 기차에서 밤을 보낸 경우도 많고 한 곳에서 대충 구경하고 가는 일도 많았다. 공성학 일행의 출발과 도착 시간, 교통수단, 숙박시설, 그리고 일정 내용을 시간적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17) 『동아일보』, 財閥과 利權, 紅蔘販賣와 三井의 暴利」, 1931년 3월 6일.

18) 『香臺紀覽』 卷一, 「日記」, 5월 4일. "三井會社支店長代理井上知博, 雜貨部主任上林熊雄, 人蔘係賴尚剛諸人出迎, 共入鐵道飯店協議視察日程."

19) 1927년 『臺灣日日新報』가 주최한 臺灣八景의 투표 활동은 먼저 20군데의 후보지를 선택한 다음에 그 중에서 다시 심사위원이 8곳을 선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팔경이란 8곳의 아름다운 명소를 말하는데 각각 基隆旭岡, 淡水, 八仙山, 日月潭 , 阿里山, 壽山, 鵝鑾鼻, 太魯閣峽谷이다. 그리고 12군데의 명승지(十二勝)인 草山, 北投, 新店碧潭, 大溪, 角板山, 五指山, 獅頭山, 八卦山, 虎頭山, 旗山, 大里蘭, 太平山도 추가되었다.

<표 1>『향대기람』속의 대만 관광 일정

날짜	출발		도착		교통수단	숙박시설	일정 내용
	시간	지명	시간	지명			
4/30	PM06:00	開城驛		京城驛	기차		天野雄之輔와 합류
5/1			AM09:00	釜山驛	기차		三井會社京城支店長 住井 마중
5/1	AM10:40		PM06:40	下關	德壽丸	川卯旅館	시내 산책
5/2	AM08:00	川卯旅館		三井物産會社支店	자동차, 증기선		布刈神社, 延命寺 참관
5/2	PM01:00	下關			吉野丸	吉野丸	선박, 식사, 오락, 시설 등에 대한 소개
5/4			PM03:30	基隆港	吉野丸, 증기선		三井會社基隆支店員과 紅蔘販賣人 張清港이 마중, 基隆 시내 관람
5/4		基隆驛	PM05:25	臺北驛	기차	鐵道飯店	三井會社支店長代理 井上知博, 雜貨部主任 上林熊雄, 人蔘係 賴尚剛이 마중, 張清港이 蓬萊樓에서 식사 초대
5/5	朝食後	鐵道飯店		臺北神社, 劍潭寺	자동차		三井會社臺北支店長 津九井誠一郎과 만남
		三井會社 臺北支社	AM11:00	博物館			鄭成功의 古蹟寶物, 蕃人의 日用器具 등 관람
			AM12:00	三井食堂			晝餐
		三井食堂	40분 소요	淡水港	자동차		洋館, 砲臺, 倶樂部 참관
	PM03:00	淡水港		北投溫泉 八勝園	자동차	臺北飯店	草山 구경
5/6	AM07:00	臺北飯店	PM02:00	角板山	자동차, 기차, 臺車	薰風館	水流東 合名會社製茶所 시찰, 駐在所 방문, 蕃人生活 시찰
5/7	朝食後	薰風館					貴賓館 관람, 蕃童學校 시찰
	AM09:00	角板山		臺北飯店	臺車, 기차		三峽, 鶯歌驛 경유
	PM03:00	臺北飯店		三井會社			紅蔘販賣人 張清港, 捷茂號藥房 방문, 三井會社支店長代理 井上之博이 梅本樓에서 저녁 식사 초대
	PM09:00	臺北驛	5/8曉	嘉義驛	기차		上林熊雄, 張清港 동행
5/8	AM07:00	清柳旅館	PM04:00	沼之平	阿里山登山鐵道車	阿里山飯店	營林廠技手 田村綠郎 방문 옴
5/9	AM08:30	阿里山飯店	PM03:00	嘉義驛	阿里山登山鐵道車, 자동차		神木 촬영, 嘉義 구경
	PM04:00	嘉義驛		潮州	기차, 자동차	屏東飯店	臺灣製糖會社 重役平山과 天野雄之輔와 합승

날짜	출발		도착		교통수단	숙박시설	일정 내용
	시간	지명	시간	지명			
5/10		屛東飯店	PM02:00	恆春	자동차 대여		屛東製糖社員 동행, 臺灣製糖會社 出張所 방문
		恆春	3시간 소요	鵝鑾鼻	자동차		
		鵝鑾鼻	PM10:00	高雄	자동차	吾妻館	恆春, 潮州 경유
5/11	朝食後	三井會社 出張所		南山	자동차		社員 吉岡 안내
		南山		高雄港 (峽灣)	자동차		蒸汽船으로 유람
	PM01:00	高雄港	PM02:30	臺南驛	기차		臺灣製糖會社 시찰, 文廟, 開山神社, 臺南神社 참배, 三井會社가 鶯遷樓에서 연회 마련
	入夜	臺南驛	5/12 AM06:00	臺北驛	기차	鐵道飯店	個人 蔘販賣商店 방문, 媽祖誕生祭典 구경, 龍山寺와 植物園 참관
5/12	PM05:00	植物園		草山溫泉	자동차	PM11:30 鐵道飯店	三井會社가 연회 마련
5/13	AM07:30	臺北驛		基隆港	기차		
	AM11:00	基隆港	5/14 AM09:00	廈門	鳳山丸	鳳山丸	

1) 동화적(同化的) 의미를 가진 관광지들

일제시대의 대만 관광은 단순히 조선 사람들에게 대만의 풍경과 문물을 소개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일본 식민정부가 관광 사업에 심력을 기울였던 것은 경제적인 이윤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화적 의미를 가진 관광지의 관람은 실은 사상 통치의 일환이었다.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가진 관광지는 다음 관광지에서 찾아낼 수 있다.

(1) 일본 신사들의 참배

江草離離岸柳陰, 강가에 풀이 무성하고 버들나무가 그늘을 이루며
商檣漁棹簇如林. 고깃배의 돛대와 노가 숲처럼 모여드네.

雄勢屈蟠山口壯,	웅장한 기세로 산 어귀를 둘러싸고
利源湊控海門深.	깊은 해구로 재원을 장악한다.
武亭俯市延遐瞩,	무정에서 멀리 시내를 조망하고
神社臨流結淨心.	신사 옆 강물 보니 청정한 맘 모아주네.
五年重到逾奇絕,	5년 만에 이 절경을 다시 맞이하였으나
風景依俙續舊吟.	풍경이 여전하여 옛 시를 계속 읊네.[20]

이 시에서는 배를 갈아타기 위해 잠시 일본에 들러 구경한 간몬해협(關門海峽)의 절경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기에서도 상세히 소개된 메카리신사(布刈神社)이다. 메카리신사는 간몬해협의 가장 좁은 곳에 위치하며 매년 1월 15일에 신관 세 명이 신사 앞바다로 들어가 미역을 잘라 신령께 바치는 풍속이 있다. 메카리는 일본말로 미역이란 뜻인데 이것이 곧 신사의 이름이 되었다.[21] 사실 간몬해협에는 여러 개의 신사가 있었다. 여기서 필자는 왜 메카리신사를 선택하여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참배하게 하였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참배 당시 신사에 대한 소개가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메카리신사를 선택하여 참배시킨 이유는 분명 신사의 역사나 유래 때문일 것이라 추측된다. 그리하여 메카리신사의 역사를 알아본 바 아래와 같은 전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에 기록된 추아이천황(仲哀天皇)의 황후인 진구황후(神功皇后)는 삼한(三韓)을 정벌하기 위해 이곳에 잠시 머물렀었다고 전해진다. 그 당시 정토 과정에서 비호를 받은 신령님께 바치기 위해 특별히 신사를 만들어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이 신사가 바로 메카리신사이다. 일본 식민통치 정부는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설(三韓征伐說)을 고대 일본이 밖으로 나가 조선 사람을 굴복시킨 선례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전설을 통해 고대 조선은 이미 일본에 조공한 바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자민족의 자신감을 강화하려고 했다.[22] 또

---

20) 『香臺紀覽』 卷三, 門司」.

21) 『香臺紀覽』 卷一,「日記」, 5월 2일. "南驅至和布刈神社, 社在關門, 海峽最狹地. 樹木菀蒼, 境內森嚴. 每年一月十五日, 社司入社前海中, 刈和布供神. 和布即甘藿也, 社以名焉."

22) 羅麗馨,「日本人的朝鮮觀—神功皇后征三韓的傳說」,『新史學』 第十八卷 第三期(2007), 209면 : "當日本要合理化其對外擴張野心時, 常利用神功皇后征三韓的傳說, 強調古代半島國家對日本朝貢的事實, 以此根植國民的信心."

한 메카리신사에 참배시키는 것도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조공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식민통치를 합리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신사 참배를 통한 동화를 수행하려는 사례가 이번 대만 일정 속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향대기람』에 따르면 일행이 5월 5일에 대만 타이베이시 북쪽 검담(劍潭) 옆 기슭에 있는 대만신사(臺灣神社)[23]를 참배했다고 한다. 1896년 일본 기타시라카와노미야(北白川宮) 친왕이 대만 정벌의 전역에서 총에 맞아 서거하였으며 그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이 신사를 설립했다. 이 신사에는 석등 수백 개가 나란히 좌우로 늘어섰는데 이는 모두 대만 관민이 봉헌한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24] 北白川宮은 대만민주국(臺灣民主國)의 독립운동을 진압하려다가 전사한 인물이다. 여기서 침입자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한 석등을 바친 대만 관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일본의 침략이 사실은 대만 관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 합리화시키면서 더 나아가 北白川宮을 전쟁 영웅으로 신격화하려는 동화적 의도가 분명하다.

(2) 정성공(鄭成功)을 모시는 개산신사(開山神社)

공성학 일행이 대만에 도착한 다음 날 하루 사이에 정성공과 관련된 장소를 두 군데나 들렀다. 하나는 정성공이 보검을 호수에 던졌던 일화로 이름을 얻은 검담(劍潭)[25]이고 다른 하나는 정성공이 대만으로 건너온 전후 300년간의 고적과 보물이 전시된 대만총독부박물관(臺灣總督府博物館)이다.[26] 그리고 6일 후 또다시 정성공을 모시는 대남(臺南) 개산신사를 참배했다. 정성공은 일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 식민통치 정부는 왜 정성공이란 사람을 중요시하고 주요한 관광지에 반드시 그를 소개했을까? 그 이유는 정성공의 출신과 연관성이 있다.

---

23) 『香臺紀覽』 내용에 '臺北神社'로 잘못 기록했다. 정확한 신사 이름은 '臺灣神社'가 맞다.

24) 『香臺紀覽』 卷一, 日記, 5월 5일. "飯後, 驅車叅拜臺北神社. 社在市北劍潭山麓, 爲北白川宮殿下而設立者也. 明治二十九年, 臺灣征伐之役, 殿下統師轉戰, 中丸而逝, 故妥其靈而社之. 制度崇嚴, 林木蓊菀, 石燈數百, 對列左右, 皆臺灣官民奉献者也."

25) 『香臺紀覽』 卷一, 「日記」, 5월 5일. "淡水一帶, 橫流社前, 名曰劍潭. 潭之傍有寺, 名曰劍潭寺. 昔鄭成功開拓此地, 而投寶劍于潭, 故名之."

26) 『香臺紀覽』 卷一, 「日記」, 5월 5일. "十一時頃, 觀覽博物館館內陳列, 卽鄭成功渡臺前後三百年來之古蹟寶物也."

정성공은 명나라 말기 사람인데 아버지인 정지룡(鄭芝龍)은 해상무역으로 일본 큐우슈우(九州) 나가사키(長崎)에 건너가 일본 여자와 결혼해 정성공을 낳았다. 명나라 멸망 때 명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대만으로 피난을 왔을 당시 선점하고 있던 네덜란드인과 어울리지 못해 1662년에 네덜란드인을 몰아내 대만의 통치권을 정식으로 얻었다는 개산신사의 소개가 있다.[27] 당시 일본 식민정부가 정성공을 내세운 동기는 다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정성공은 명나라의 부흥이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청나라에 항거했던 중요 인물이었다. 청일전쟁의 대가로 조국을 잃고 주권을 일본으로 넘긴 대만 사람들에게 정성공이란 사람은 청나라와 대만 사이의 유대 관계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수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정성공의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란 사실이다. 정성공은 대청 항쟁의 공훈으로 인해 명나라로부터 국성 주(朱) 씨 성을 하사받았던 '國姓爺'인데다가 일본의 '고귀'한 혈통을 이어받은 대만의 개산조사였다. 당연히 오랑캐에 의해 만들어진 청나라보다 한족의 피와 일본의 피를 이어받은 정성공을 내세우는 것이 일본 정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성공은 조선 사람들에게도 아주 낯선 인물은 아니다. 정 씨의 해상세력에 대한 관심은 일찍이 조선 숙종(1661~1720) 때부터 있었다. 당시 조선 조정은 정 씨 해군이 조선을 침범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대청사행(對淸使行), 대일사행(對日使行), 그리고 표류민 등을 통해 정 씨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한 적이 있었다.[28] 이렇듯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타산이 있어 정성공과 관련된 장소는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들려야 하는 곳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3) 상서로운 대나무-서죽(瑞竹)

동화적 의미를 가진 관광지는 신사들뿐만이 아니다. 『향대기람』에 이런 기록이 있다. 1923년 봄에 당시 쇼와(昭和)천황이 아직 황태자였던 시절에 병동(屛東)에

---

27) 『香臺紀覽』 卷一, 日記, 5월 11일. "轉至開山神社, 社爲鄭成功設也. 成功明末時人, 其父以貿易渡日本九州長崎, 娶日女而生成功. 其父歸國不再來, 其母携幼兒至明, 因居焉. 及明亡之時, 率明朝子孫避亂至此, 與先居蘭人不能相容, 相爭有日始得勝捷, 而把握統治之權, 主宰此土, 追封東平王, 是爲畧歷. 而神社制度極爲壯嚴."

28) 우인수, 「17세기 후반 臺灣 鄭氏海上勢力에 대한 조선의 정보 수집과 그 의미」, 『대구사학』 Vol. 100(대구사학회, 2010), 166~174면.

있는 대만제당회사(臺灣製糖會社)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회사 쪽은 황태자를 봉영하기 위해 사전에 대만 대중주(臺中州) 가의시(嘉義市) 죽산군(竹山郡)에서 큰 대나무를 가져와 작은 휴게실을 만들었다. 황태자가 떠나기 전에 자른 지 40일이나 지난 대나무의 마디에 놀랍게도 청청한 새 싹이 돋아 나왔다. 이것을 본 황태자는 찬탄을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회사 사람들의 세심한 관심으로 작은 싹이 벌써 대나무 숲이 되었으며 이는 황실 번영의 상서로운 조짐이 되었다고 했다.[29]

평범한 대나무가 황태자의 칭찬 한 마디로 상서로운 대나무가 되었다. 그 후 고웅주청(高雄州廳)은 매년 황태자가 방문한 4월 22일에 병동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전교생 모두가 대나무 숲에 참배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참배를 마친 학생들에게는 보상으로 각설탕을 하나씩 나눠 주었다. 따라서 이 '서죽참배(瑞竹參拜)'란 것은 단순히 학생의 견학활동이 아닌 대나무를 통해 일본 통치자를 신격화하고 참배자를 대상으로 한 동화적 수단이다.

관광이라는 명목 하에 신사와 같은 일정을 잡은 것은 대만과 조선을 신도(神道)를 근간으로 하는 일본에 종속시키려는 것이었다. 동시에 신사 역사나 전설에 내포되어 있는 각종 이데올로기를 관광객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일본 식민정부에게 신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만일일신보』가 당시 대만팔경을 선출한 후 심사위원에 의해서 대만신사와 신고산(玉山)을 별격(別格)으로 추가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일본 식민정부는 공성학 일행과 같이 식민지 내에 유력인사들을 선별해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한 동화정책을 실행하려는 의도가 향대기람≫의 관광 일정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

29) 『香臺紀覽』卷一, 日記, 5월 9일. "與天野氏相與談話, 氏整襟語一行曰:'大正十二年春, 今上在東宮時, 行啟臺灣, 駕臨弊社, 而弊社為奉迎, 準備新建休憩小屋, 用以竹柱矣. 行啟前數日, 柱竹節中自抽新筍, 青青可挹. 此竹本產於臺中州竹山郡, 而為其結搆, 伐取貯庫, 經四十餘日矣. 殿下駐駕御覽, 嘉賞不已. 伊後用意培養于今, 鬱然成林, 誠皇室繁榮之瑞兆也.'"

2) 조선과 전혀 다른 이국적 경치

(1) 원주민의 생활상

天地人并久,	하늘 땅 사람은 모두 오래됐지만,
玆山尚太初.	이 산은 아직도 태초에 있네.
文身殊種族,	문신한 이 다른 종족은
搆木異巢居.	나무로 기이한 집을 지어 사네.
靈性非無近,	총명하고 친근하며,
王章自有疎.	나름의 법을 행하고 있네.
羣童呼萬歲,	아이들이 만세 소리를 부르니
遠客暫停車.	멀리서 온 손님들이 잠시 차를 멈췄네.[30]

이 시에서는 몸에 문신을 한 종족이 완전히 다른 원주민 아이들이 공성학 일행을 환송하기 위해 길가에 늘어서서 만세 소리를 일제히 부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일제시대 당시 대만 원주민은 생번(生蕃)과 숙번(熟蕃) 두 종류로 나눠져 있었다. 생번은 대륙 문화에 아직 동화되지 못하고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부류이고 숙번은 대륙 문화에 동화되어 비교적 현대 문명을 이룬 부류이다. 일행이 각판산(角板山)에 갔을 때 만난 원주민 아이들은 바로 숙번이었다. 원주민에 대한 소개는 『향대기람』에도 나와 있다. 대만 원주민들은 원래 평지에 살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주해 온 한족의 압박으로 평지에서 물러나 산간지대에 정착하게 되었다. 종족은 7개[31]가 있으며 언어와 풍습이 서로 상이하다. 성격은 용맹스럽고 호전적이며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공동으로 방어하는 단결 정신이 있으며 어업이나 수렵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한다.[32]

---

30) 『香臺紀覽』 卷二, 角板山」.

31) 현재 대만 행정원 원주민족위원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원주민 종족은 阿美族, 泰雅族, 排灣族, 布農族, 卑南族, 魯凱族, 鄒族, 賽夏族, 雅美族, 邵族, 噶瑪蘭族, 太魯閣族, 撒奇萊雅族, 賽德克 등 14개 부족이 있다. 각 종족의 분포지역, 풍속, 습관, 언어문화 등 모두 다르다.

32) 『香臺紀覽』 卷一, 「日記」, 5월 7일. "…視察蕃童學校, 男女五十餘名皆跣足裸體, 以布片遮前胸者多矣. 教師(駐在所巡查兼務)指點數三兒童, 或對話, 或講演, 用日本語出示學藝品及手工品, 一行稱奇.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당초 원주민이 대만으로 이주해 온 한족의 탄압을 받았던 것에 비해 일본 식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일본의 현대 문명에 귀화하여 생활 전반에 걸친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저축까지 가능해졌다는 서술이다. 사실 일본 식민정부는 그 지역의 목재, 장뇌와 같은 자원과 원주민의 인적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그곳의 원주민 아동을 교육시킨 것이었다. 공성학 일행의 대만 방문 2년 후인 1930년에 원주민의 항일운동인 무사사건(霧舍事件)이 발생하였다. 무사사건은 일본 식민정부가 도로, 교량, 주재소 등의 건설을 위해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으로 원주민을 강제 동원시켰던 것과 권력을 이용한 가혹한 행위를 자행하는 경찰들에 대한 원주민들의 반항이었다. 원주민들이 무장봉기하여 경찰분실(警察分室), 주재소, 우체국, 학교 등을 습격해 소총, 탄약을 강탈하였다. 이 사건을 주도한 시디그(賽德克) 족은 일본의 무력 진압으로 2백여 명 정도만 남아 멸족 위기에 처했었다.

위의 기록과 같이 일본이 내세운 표면적 사실 외에 이면의 다른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즉, 대만의 천연적·인적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현대화 시설을 구축하고 원주민을 교육시키면서 원주민의 생활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은 일본 식민정부가 처음부터 원주민의 생활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 아리산(阿里山)의 고산 절경

却訝天階住我節,	놀랍게도 천궁의 계단이 대나무에 있고
人間落日亦童童.	해가 져도 여전히 세상은 번화하네.
須臾萬壑成雲海,	수많은 산골짜기가 순식간에 구름바다가 되어
擎出亭亭一兩峯.	산봉우리만 한두 개 높이 솟았네.[33]

為贈若干筆墨之資, 而就歸路. 臺灣生蕃本居平地, 而為移住漢族之所壓迫, 退居山間者. 種族凡七類, 言語風俗相異, 而七百四十餘社, 人口總計十三萬餘人. 品性猛獰, 動作輕快, 好勇鬪悍, 而自族之間團結堅密一致, 協力防禦外侮. 漁業及狩獵資生, 宛如原始民族, 而就中熟蕃蕃性質稍溫, 歸化于現代政治, 角板山住民盖此類也. 觀其生活狀態, 單純質朴似無物外之欲, 而近來教化漸進, 生活稍稍改善, 內有貯金納稅者, 且有卒業醫專開業于山頂者矣."

33) 『香臺紀覽』卷三, 登阿里山·右暮景」.

千章檜木夕蒼凉,	밤에 처량한 홍회나무 천 그루가
坐我一天星斗傍.	별들로 가득한 하늘 가까이 앉았네.
山窓夜久聽遙犬,	한밤에 창문을 넘어 멀리 개 짓는 소리를 듣고서야
始覺人居雲外鄕.	고산 마을에 머물고 있는 걸 깨달았네.[34]

林霧初收曉色澄,	숲에 안개가 걷히자 주황빛 동이 트며
天鷄啼破日輪昇.	닭들이 울어대자 태양이 떠오르네.
中峰宿處迷雲海,	구름바다가 봉우리 중턱에 머무르고
疊嶂朝來削玉稜.	겹겹의 산봉우리는 아침햇살에 날카롭게 깎였네.
詩或偶然成不易,	시는 우연이니 짓기가 어렵고
境逢奇絕畵難能.	절경을 만나니 그림 그리기도 힘드네.
廿年已負金剛約,	금강산 유람 약속을 어긴 지 20년이나 지났는데
豈意玆山忽遠登.	갑자기 이 먼 산까지 올지 어찌 알았으리[35]

아리산은 대만팔경의 하나로서 일출, 구름바다, 저녁노을, 삼림, 그리고 고산철도 등 다섯 가지 절경으로 이름나 있었다. 위에 서술한 세 편의 시는 각각 웅장한 구름바다, 처량한 홍회(紅檜)나무, 그리고 황홀한 일출을 묘사하는 시편이다. 저녁노을과 구름바다에 대한 기술은 일기에도 기록되었다. “석양이 서쪽으로 졌을 때 햇빛이 비스듬히 무수한 산봉우리에 비치게 되었고, 산릉선을 가리앉혀 하나의 구름바다가 되었다. 이 경이로운 경치에 감히 시를 짓지도 못하고 그림을 그려도 그 절묘함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아름다운 경치에 크게 감탄하였다.[36]

아리산은 한 봉우리의 산이 아닌 대만 중부 옥산(玉山) 서쪽의 여러 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아리산 산맥의 최고봉은 대탑산(大塔山)이며 높이는 2,663미터이다. 기록에는 벌목으로 인한 삼림 파괴가 없어 홍회나무, 편백, 삼나무 등의 나무가 높이 하늘 위로 솟았으며 둘레는 몇 아름이나 되는 나무가 많다고 기록하고

34) 『香臺紀覽』 卷三, 登阿里山・右夜景」.
35) 『香臺紀覽』 卷三, 「登阿里山・右朝景」.
36) 『香臺紀覽』 卷一, 「日記」, 5월 8일. “少焉西風乍起, 重霧捲盡, 奇峰疊嶂如列屛障, 掛西紅日返照, 斜映下界千萬峯, 沒却圭稜變成一雲海矣. 此時此景詩固不敢, 畫亦不能真奇絕也.”

있다.[37] 이 중에서 신목(神木)이라고 불리는 나무가 하나 있었다. 이 신목은 대만의 고유한 품종인 홍회나무이다. 높이는 53미터이고 수령은 3천년이 지났다. 나뭇잎이 무성하고 기세가 삼엄하여 마치 신선이 나무 위에 사는 듯했다고 기록하고 있다.[38] 이 신목은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운이 좋게 보존되었지만 현재는 주변에 벌목장이 있어 대형 홍회나무들이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 이 귀한 나무는 구성이 견고하고 벌레가 생기지 않아 대부분 일본으로 운반되어 메이지신궁(明治神宮), 가시하라신궁(橿原神宮) 등 신사 건축이나 금강사(金剛寺), 상국사(相國寺) 등 불교 사찰 자재로 사용됐다. 심지어 일제시대 조선 식민지배의 상징으로 서울의 남산 중턱에 세운 조선신궁(朝鮮神宮)도 대만 홍회나무를 사용했다고 한다.[39]

아리산의 고산철도는 벌목을 하기 위해 부설된 것이다. 1920년부터는 관광객을 운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가의시(嘉義市) 기차역에서 출발해 아리산까지 가는 고산철도는 기찻길을 따라 열대기후의 풍경과 고산지대의 경치를 동시에 구경할 수 있다. 온대기후의 경치에 익숙한 공성학 일행에게는 신기할 수밖에 없었다.

(3) 대만 사람의 마조(媽祖) 신앙

1928년 5월 12일 공성학 일행은 타이베이에서 홍삼 판로를 역방했을 때 뜻밖의 관경을 목격하였다. 음력 3월 23일은 마조의 탄생일로서 대만 사람들은 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거대하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다. 『향대기람』의 기록에 따르면 그날 각 상점이나 단체 등 수천 명의 대만사람들이 참여하여 도로가 꽉 찰 정도였다고 한다. 참여자는 깃발, 창검을 들어 올리거나 퉁소나 징을 연주하며 사자춤이나 용춤을 추거나 관우(關羽)나 장비(張飛)의 꼭두각시 행세를 하였다. 거대한 꼭두각시를 보고 놀라서 울음을 터뜨린 어린 아이도 있었다. 신여(神輿) 행렬 뒤에 채거(彩車) 한 대가 있는데 이는 서울에서 신사 제사 때 시내를 도는

---

37) 『香臺紀覽』卷一, 日記, 5월 8일. "阿里山海拔九千六百尺, 峻極于天, 而山中多有紅檜, 扁栢, 香杉等木. 自開闢後, 斧斤不入, 故無非千丈連抱, 如此森林儘國中之寶藏也."

38) 『香臺紀覽』卷一, 「日記」, 5월 9일. "又撮影于神木之下. 神木即紅檜木也, 其壽大約經三千年, 而高百二十五尺, 周圍六十五尺. 枝葉茂綠, 落落如華, 盖其勢森嚴, 若有神居焉."

39) 蕭肅騰, 「日治時期台灣殖民觀光意象之解構」(碩士論文, 南華大學, 2004), 112면.

채거 형태와 대략 비슷했다고 했다. 시내 사람들이 바친 이 채거 위에는 용이나 학 모양을 장식하여 어린 여자 아이를 용머리나 학 부리 위에서 춤을 추게 했기 때문에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고 했다. 채거 행렬은 여덟이나 아홉 개가 있어 길이가 몇 리는 되었다. 각양각색의 양태와 기예는 마치 꿈과 같고 가히 경관이라고 했다.[40] 제사 행렬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의 놀라는 모습,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의 조마조마한 마음까지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마조와 관련된 최초의 자료는 중국 남송시기 요붕비(廖鵬飛)란 자가 1150년에 쓴 「성돈조묘중건순제묘기(聖墩祖廟重建順濟廟記)」이다. 이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마조는 하늘과 소통하는 신녀로 성씨는 임(林) 씨이고 미주서(湄洲嶼) 사람이었다. 원래 무축(巫祝)을 일 삼고 인간의 화복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노윤적(路允迪)이란 사람이 조서를 받아 고려로 사행길을 떠났는데 중국 동해에서 풍랑을 만나 대부분의 선박은 충돌하여 크게 손상을 받거나 침몰되었다. 그때 노윤적이 탄 배의 돛대에 한 여신이 내려와 춤을 추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잔잔해져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41] 이 기록을 통해서 마조는 생전에 무녀였고 사후에는 바다의 여신으로 신격화되어 바다에서 조난 당한 사람을 구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조 신은 중국 남부 복건성(福建省)에서 기원되었으며 해외무역에 종사하는 화교들에 의해 동아시아 등지로 퍼져나갔다. 그 중에서도 마조 신앙이 깊은 곳은 대만이며 지금도 대만 각지에서 마조를 모시는 사당을 흔히 볼 수 있다. 현재 대만의 가장 보편적인 민간신앙 중의 하나가 되었다. 마조 신앙은 또한 몇몇 조선 사람들에게는 낯선 것이 아니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해로(海路)

---

40) 『香臺紀覽』 卷一, 日記, 5월 12일. "是日卽本土人崇信媽祖年例祭日也, 各商店, 各團體叅加行列. 一隊或三四十人, 或五六十人, 填街滿路, 無慮數千人. 或擎旗幟, 或捧鎗劒, 或奏簫鼓, 或鳴金鉦, 或假裝舞獅飛龍走馬等物形, 或假裝關公張飛趙雲等人形丈, 各數丈餘, 令小兒怖啼背走. 或擔無數神輿, 最後引一大彩車, 車上假飾龍鶴, 使童妓立舞於龍頭鶴喙, 觀者心寒不忍正視. 彩車制與京都祇園祭日巡市式大約相類, 此是市內各町人献誠, 故以上彩車行列多有八九隊, 延亙市路, 幾乎數里. 形形色色, 各盡其技, 有若幻戱者然, 真可謂奇觀."

41) 陳國強, 「有關媽祖研究的幾本書」, 『媽祖信仰與祖廟』(福建教育出版社, 1990), 143면 : 「聖墩祖廟重建順濟廟記」에는 "世傳通天神女也. 姓林氏, 湄洲嶼人. 初以巫祝為事, 能預知人禍福. …給事中路允迪出使高麗, 道東海. 值風浪震盪, 舳艫相衝者八, 而覆溺者七. 獨公所乘舟, 有女神登檣竿為旋舞狀, 俄獲安濟."라고 한 기록이 있다.

사행록(使行錄)을 통해서 조선 사람과 접촉했던 기록이 있으며 심지어 조선에 정착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42] 1452년에 황해도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하자 이선제(李先齊)가 상소를 올렸다. 상소문에는 예전 사당을 중국에 있는 조천궁(朝天宮) 신상과 같이 새로 수리하여 조관(朝官)을 성당(聖堂)으로 보내 빌면 어찌 복이 없겠느냐는 기록이 있다.[43] 여기에 적힌 조천궁은 바로 마조를 모시는 사당이다. 그리고 1780년에 나주의 대흑산도(大黑山島)에 중국 선박이 표류했던 기록도 있다. 그 선박 위에는 층루(層樓)를 만들었고 금색으로 '덕의게범(德意揭帆)'이란 네 글자가 쓰여 있었다. 중간에는 26폭의 그림이 걸렸는데, 이것은 천후낭낭(天后娘娘)으로서 선박을 편안하게 하는 불상이라고 하였다.[44] 여기서의 천후낭낭은 마조의 별명이고 당시 마조는 이미 선박 운항의 평안함을 지켜 주는 여신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려와 조선 사신들은 해로를 통해 중국 대륙으로 오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자신들의 견문을 기록한 해로 사행록에도 마조와 관련된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들은 마조 사당을 들러 마조를 축원하거나 뱃사람들과 같이 배에서 마조에게 제례를 올리고 항해 안전을 기원하기도 했다.[45] 마조 신앙과 조선 뱃사람, 그리고 사신들과의 밀접한 접촉은 훗날 평안도 일대에 마조 사당이 만들어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공성학 일행이 우연히 타이베이 시내에서 목격한 제사 행렬은 그들이 정해진 관광 일정을 벗어나 대만 사람의 실제 생활상을 관찰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조선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기억을 연결시키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장에서 『향대기람』 내용에 기록된 동화적 의미를 가진 관광지와 이국적인

---

42) 尚基淑, 中韓海神信仰考察－以媽祖與靈登爲中心」, 媽祖信仰文化暨在地人文藝術國際學術研討會(北港朝天宮・國立中正大學台灣文學研究所, 2012), 146~148면.

43) 『朝鮮王朝實錄』,「端宗實錄」, 端宗 1卷, 卽位年 6月 28日. "慶昌府尹李先齊上書曰:'…臣愚以爲, 修葺舊堂, 新作神像, 儼若中朝朝天宮列宿之像, 又如三叉河海神之容, 分坐左右, 尊敬如舊, 命遣朝官, 致告聖堂, 以祈陰祐, 則豈無昭格降福耶?'"

44) 『朝鮮王朝實錄』,「正祖實錄」, 正祖 10卷, 4年 12月 7日. "羅州 大黑山島, 有漂到異國船, 長百八十一尺, 腰闊三十尺. 凡四桅, 其大者長十四丈, 圍圓十二尺. 船上爲層樓, 金書德意揭帆四字. 中揭二十六幅畫佛像云, 是天后娘娘安船佛像. 又以五采, 畫人, 禽, 花草, 辟邪諸像."

45) 朴現圭,「高麗・朝鮮시대 海路 使行錄에 투영된 媽祖 분석」,『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9), 452~454면.

경치를 통해 일제시대 당시의 대만 모습을 재현하고 그 모습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의미를 발굴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일제시기 대만의 모습을 설명하기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 꾸며지지 않은 대만의 실상을 보려면 지정된 관광 일정에서 벗어나 직접 접촉해 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당시의 치안, 위생환경, 교통, 숙박 그리고 언어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외국인으로서 개인 관광은 실로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4. 결론

『향대기람』은 일기와 시문으로 구성된 관광 기록이다. 일기는 공식적 선전물이 아닌 이상 저자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보이는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기 마련이다. 시문 또한 그렇다. 저자의 감흥과 사상이 시구 한 마디 한 마디에 함축되어 예로부터 진실에 다가서는 가장 좋은 연구 대상이 되곤 하였다. 이런 사실에 입각하여 공성학 일행의 대만 관광 일정을 살폈으며 일정에 적힌 대만 견문을 소개해 그 내포된 의미를 해명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1장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과 한계를 밝혔다. 2장에서는 조선 사람이 대만에 가진 인식을 소개하고 공성학 일행의 대만 방문 동기를 찾아냈다. 그리고 공성학이 소속된 개성상인 집단과 미쓰이회사의 정체를 밝힌 후 둘 사이의 밀착한 관계를 해명했다. 3장에서 대만의 실태를 재현하기 위해 동화적 의미를 가진 관광지와 이국적인 경치를 통해 표면적인 모습을 구성한 후 다시 그 속에 내포된 의미를 발굴했다. 동시에 조선과 대만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적·문화적 연계를 찾아내 대만과 한국의 민간교류 사이의 공백을 채우려고 노력했다.

본 연구에서는 동화적 의미를 가진 관광지들과 조선과 전혀 다른 이국적 경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지만 당시의 교통시설이나 유흥시설을 포함한 현대 문명시설 등도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46] 또한 몇몇 기록에는 당

46) 논문에서 소개되지 않은 당시 대만의 현대 문명과 관련된 내용은 『香臺紀覽』을 통해 본 일제시대 대만의 교통과 유흥시설」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여 발표할 예정임.

시 여행을 하면서 나타난 작가 이면의 생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당시 조선 사람이 가지는 대만에 대한 인식이나 오해, 조선 사람의 인식보다 더 발달되거나 낙후되어 있었던 당시 대만의 광경을 보면서 느꼈던 공성학의 생각을 바탕으로 당시 식민지 상황 아래 있었던 조선 사람으로서의 갈등과 모순 등도 추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같은 식민지의 상황 아래에 있었지만 대만이 일본에 가지는 감정과 한국이 일본에 가지는 감정은 판이하게 다른데 이 또한 비슷한 듯 다른 두 나라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대기람』이란 책이 가진 가치는 그 당시의 민간교류가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당시의 사상과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으며, 이것을 초석으로 대만과 한국 더 나아가 일본과의 공동적인 학술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이 책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발굴과 동아시아적인 광범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투고일 13.01.02 심사완료일 14.02.04 게재확정일 14.02.10

▌참고문헌

孔聖學,『中遊日記』, 1923.

孔聖求 編,『香臺紀覽』, 中央印書館, 1931.

孔聖學 編,『春圃壽言彙錄』, 漢城圖書(株), 1940.

羅麗馨,「日本人的朝鮮觀－神功皇后征三韓的傳說」,『新史學』 第十八卷 第三期, 2007.

박성용,「일제시대 한국인의 일본여행에 비친 일본 －시찰단의 근대 공간성과 타자성 인식－」,『대구사학』, 대구사학회, 2010.

朴現圭,「高麗・朝鮮시대 海路 使行錄에 투영된 媽祖 분석」,『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9.

尚基淑, 「中韓海神信仰考察－以媽祖與靈登爲中心」, 媽祖信仰文化暨在地人文藝術國際學術研討會, 北港朝天宮・國立中正大學台灣文學研究所, 2012.

蕭肅騰,「日治時期台灣殖民觀光意象之解構」, 碩士論文, 南華大學, 2004.

손준식,「『동아일보』(1920~1940) 기사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臺灣 인식」,『中國學報』 Vol.61, 한국중국학회, 2010.

우인수,「17세기 후반 臺灣 鄭氏海上勢力에 대한 조선의 정보 수집과 그 의미」,『대구사학』 Vol.100, 대구사학회, 2010.

이은주,「일제강점기 개성상인 孔聖學의 간행사업 연구」,『語文學』 Vol.118, 한국어문학회, 2012.

_____,「1923년 개성상인의 중국유람기『中遊日記』연구」,『국문학연구』 Vol.25, 국문학회, 2012.

張倩容,「日治時期台灣的觀光旅遊活動」, 碩士論文, 東海大學, 2007.

鄭惠瓊,「植民地 時機 朝鮮 社會의 外地 認識 : 臺灣과 南洋群島 新聞記事 論調 分析」,『한일민족문제연구』, 한일민족문제학회, 2012.

陳國強,「有關媽祖研究的幾本書」,『媽祖信仰與祖廟』, 福建教育出版社, 1990.

許介鱗,『日本殖民統治的後遺症 : 台灣 vs.朝鮮』, 文英堂, 2011.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동아일보』 http://www.donga.com/pdf/index.php

『臺灣日日新報』 http://smdb.infolinker.com.tw/

A study on the appearance in Taiw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rough 『Travel in Hong Kong and Taiwan(香臺紀覽)』

Chen, Qing-zhi*

The relationship between Taiwan and Korea is very intimate regardless of the location or the overview of history. Recently, due to the Korean Wave and the increasing numbers of visitors and the trade between them, it shows the familiarity of their interactions. But when we look up the studies of the history of interactions between Taiwan and Korea, there are seldom scholars interested in the interactions of the history and culture between Taiwan and Korea except for just few professors interested in politics, economics, etc. Under this circumstance, I try to collect related historical materials of the interactions between them but find out that almost all documents are all aimed on modern times and the contents of them are almost official. For this phenomenon, I doubt that the interactions of Taiwan and Korea in the past years are all limited in the official way. Is it possible that there is no any form of folk interactions between them? So the study focuses on finding out new historical materials to rediscover the scene of the interactions at that times and discussing the hidden meaning of the documents.

This book『Travel in Hong Kong and Taiwan』records the course of Kong Seong-Hak, Kong Seong-Gu, Son Bong-Sang, who are the businessmen at Kaeseong city in the Joseon Dynasty in 1928, visiting Hong Kong and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NCCU

Taiwan through the Mitsui Company for investigating the selling distribution of red ginseng. It could be replenished the insufficiency of the official records and show the complete situations in Taiw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y the point of view of folk people and foreigners in this book. The study has four chapters. The first chapter gives a simple introduction of the background, purposes and extent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is aimed to discuss the motivation of visiting Taiwan, explaining the development of the Joseon business groups, and the reason of cooperation with Mitsui Company by knowing a basic impression of Joseon people to Taiwan. The third chapter separates scenic spots in the route to two parts : one is for those scenic spots which have assimilative meaning, and the other one is for exotic scenic spots which are totally different from Joseon. In these two parts, there is subdivision for visiting Japanese shrine, Koxinga Shrine which enshrines Zheng Cheng-Gong, and the bamboo which symbolizes an auspicious sign in one part; there is subdivision for the life style of aboriginal people, beautiful scenic spots in Mountain A-li, and the Matsu belief of Taiwan people, etc. in the other one part. In addition to rebuilding the real situations in Taiwan at that times, I find out the hidden meaning behind the words in the records of visiting Taiwan interactions to recover the historical emptiness of folk interactions between Taiwan and Korea by using these historical materials to interconnect the interactions of them in the past years. The fourth chapter is the review, the conclusion, and the questions for further study.

Key Words : Kong Seong-Hak, Travel in Hong Kong and Taiwan(香臺紀覽),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aiwan, Mitsui Company(三井會社), Matsu belief (媽祖信仰), Koxinga(鄭成功)